

‘가을 캠핑의 낭만은 바로 이런 여유.’ 강원도 평창의 솔섬오토캠핌장 캠핑사이트에 해먹을 걸고 늦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는 가족 캠핑객. 주말을 이용해 자동차로 찾아가면 지역의 독특한 풍광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가족 캠핑장들이 요즘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가족과 가을캠핑…어디가 좋을까?

연천 고대산 글램핑…포천선 식물원 구경
무주 덕유대, 덕유산 국립공원 경치 만끽
평창 아트인·솔섬오토 캠핑장 계곡 일품
고성 당항포에선 공룡테마파크 구경까지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주말마다 가족들과 여가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한다면 자동차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역 캠핑장은 어떨까. 한국관광공사는 가족과 함께 늦가을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지역 캠핑장 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연천 고대산 캠핑리조트 글램핑



김포 매화미르마을 캠핑장

●연천·포천·김포 캠핑장(경기도 연천군·포천시·김포시 일대)

연천 고대산 캠핑리조트는 28만8000여 m² 공간에 오토캠핑장과 글램핑, 캐러밴, 콘도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천 베이스 볼파크와 고대산 등산로가 가까워 스포츠와 등산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또 신탄리역이 가까워 연천 시티투어도 이용 가능하다.

포천 유식물원 캠핑장은 식물원, 오토캠핑장, 글램핑, 펜션이 있는 복합 휴양 공간이다. 잣나무 숲속에 단독 캠핑 사이트 조성이 가능해 호젓한 캠핑이 가능하다. 민통선 안 김포 매화미르마을 캠핑장은 멸종 위기 식물인 매화마름 최대 군락지로, 청정한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전북 무주 덕유대 야영장& 장수 방화동 가족휴가촌(전북 무주군·장수군 일대)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의 덕유대 야영장과 장수 장안산 군립공원의 방화동 가족휴가촌은 울창한 숲과 계곡이 주는 자연미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최대 매력이다. 두 곳 모두 캠핑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기 전부터 운영을 해온 오랜 전통을 가진 캠핑장이다. 통영대전 고속도로가 지나가 접근성이 좋고, 이용료가 저렴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장수군청이 운영해 시설과 안전관리도 믿을만하다.

덕유대 야영장은 일반 야영장과 오토캠핑장 모두 예약제로 운영한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은 오토 캠핑장만 예약제고, 일반 야영장은 선착순이다. 해설이 있는 자연 탐방 프로그램과 트레킹을 즐길 수 있으며, 곤돌라를 타고 덕유산 향적봉에 오르거나 장수향교와 논개사당을 둘러보는 등 즐길 거리도 다양하다.

●평창 아트인 아일랜드 캠핑장, 솔섬오토캠핑장(강원도 평창군 일대)

강원도 평창의 캠핑은 다른 곳과 달리 해발 700m 높이에서 느끼는 상쾌한 공기를 즐길 수 있다. 흥정계곡에 있는 아트인 아일랜드 캠핑장은 잣나무와 낙엽송 아래 캠핑 사이트를 만들었다. 계곡에서는 낚시를 할 수 있고, 캠핑장 대표가 운영하는 잣나무농장에서 숲을 걷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체험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금당계곡의 솔섬 오토캠핑장은 계곡물이 얕아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고, 저녁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영화도 상영한다.

●경남 고성·거제 오토캠핑장(경남 고성군·거제시 일대)

고성 당항포관광지 오토캠핑장은 캠핑과 공룡테마파크 관람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캠핑장 삼면이 산이고 당항포관광지 끝자락이 바다와 맞닿았다. 캠핑 사이트 크기가 넉넉하고 여유 공간이 많아 편리하다. 선착순으로 사이트를 배정한다.

고성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은 눈앞에 바다가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바다 위를 걷는 해안 산책로가 있고 바다낚시나 갯벌 체험 등 즐길거리가 많다. 캠핑장 내 캐러밴 시설도 대여한다. 거제도 학동흑진주몽돌해변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운영하는 학동 자동차야영장이 있다. 편의 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국립공원이 운영하는 탐방 프로그램이 있다. 토요일에는 라이브 공연도 열린다.

●충주 캠핑장(충북 충주시 일대)

충주의 캠핑장들은 서울에서 차로 1시간30분 정도의 거리지만 주말에도 북적임이 덜하다. 엄정면의 충주반딧불 오토캠핑장은 옛 초등학교 터에 조성했다. 일반 텐트와 캐러밴 등을 갖추고 글램핑도 가능해 장비를 챙겨가지 않아도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캠핑 사이트 공간도 넉넉하다. 금가면의 요카카 캠핑장은 캠핑과 함께 카약·카누도 즐길 수 있다. 강변 언덕에 위치해 캠핑장 사이트에서 남한강 풍광을 볼 수 있다. 앙성면의 밤별 캠핑장은 밤나무 과수원 터에 만든 캠핑장으로, 앙암저수지 근처여서 가을 운치를 더한다. 충주에는 이렇게 자연을 벗삼은 10여 개 캠핑장이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



30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공식출시 행사에서 ‘아슬란’과 함께 포즈를 취한 현대자동차 김충호 사장. 아슬란은 전륜구동 세단으로는 국내 대형고급차 중 최상위 모델이다.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전륜구동 고급세단 ‘아슬란’ 출시

현대차 최상위 모델…최고출력 294마력·연비 9.5km/l

현대자동차는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아슬란(ASLAN)’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그랜저가 엔트리급 고급차라면 아슬란은 전륜구동 세단으로는 국내 대형 고급차 중 최상위 모델이다. 또 한 단계 위급인 제네시스가 주행성능과 고급감을 강조한 후륜구동 대형 세단이라면, 아슬란은 상대적으로 정숙성과 안정된 승차감을 강조했다. 대형 후륜구동 세단에 부담을 느끼는 고급차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 현대차의 전략이다.

아슬란은 가솔린 엔진인 람다Ⅱ V6 3.0 GDi와 람다Ⅱ V6 3.3 GDi 등 총 2개의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된다. 3.0 GDi 엔진은 최고출력 270마력, 최대토크 31.6kg·m의 성능을 갖췄고, 연비는 9.5km/L다. 3.3 GDi 엔진은 최고출력 294마력, 최대토크 35.3kg·m, 연비 9.5km/L다.

아슬란에서 가장 강조된 장점은 정숙성이다. 전면 윈드쉴드와 전·후석 도어 유리에 이중접합 차음유리를 적용했고, 차폐구조 개선, 엔진룸 및 주요부위에 흡차음재 확대 적용으로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했다. 또 엔진 및 변속기의 부품 강성을 높이고 다양한 설계 개선을 통해 공회전 진동, 가속 소음, 엔진 투과음 등에서 정숙성을 높였다.

가격은 3.0 모델 3990만원, 3.3 모델은 4190만~4590만원이다. 2015년형 그랜저(3024만~3875만원)보다는 비싸고 제네시스(4660만~6960만원)보다는 낮게 책정됐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네버 스탑 익스플로링’ 영상 유튜브 신기록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의 ‘네버 스탑 익스플로링(Never Stop Exploring)’ 캠페인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신기록을 수립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9월30일 ‘승부욕 돋는 노스페이스 영상’이란 제목으로 유튜브에 공개된 이후 한 달 만에 770만2683(30일 오전 9시 기준)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제작한 브랜드 바이럴 영상 중에서 조회수 770만을 돌파한 것은 노스페이스가 최초. 영상에서는 갑자기 매장 바닥이 사라지고 의지할 곳은 벽에 달린 클라이밍 월뿐인 상황이 펼쳐진다. 이윽고 천정에 숨겨져 있던 다운재킷이 내려오고 ‘제한시간 30초! 노스페이스 다운재킷을 GET하세요!’라는 미션이 공개된다.

이 영상은 해외에서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세계적인 광고 전문지인 애드위크의 메인 페이지에도 소개됐다. 미 피플지 온라인판, 미 워싱턴주 소재의 KHQ 방송 뉴스 등에도 소개되면서 계속 조회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노스페이스가 1년 전에 진행한 ‘북극한파 몰래카메라’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200만을 기록했다. 이 영상으로 노스페이스는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페스티벌 2014’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실버로드족 가방에 뭐가 있을까?

‘워킹 스틱’은 힐링 위한 여행 잇 아이템
‘실버 무한톡’ 휴대전화로밍 요금제 인기

실버로드족의 여행가방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실버로드족은 노년을 뜻하는 ‘silver’와 해외를 뜻하는 ‘abroad’를 합친 신조어. 기존 노년층과 달리 은퇴 후에도 여가활동과 소비생활을 즐기는 이들은 해외여행도 적극적이다. 힐링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실버로드족이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우선 ‘워킹 스틱’이 있다. 워킹 스틱은 관절에 전해지는 충격을 30% 정도 감소해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하중을 분산시켜 다리에 전해지는 힘이 적어져 피로함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버 세대의 여행 ‘잇 아이템’ 중 하나다. 스틱 전문 브랜드 레키에서 내놓은 ‘뉴 투어스틱’ 등이 인기다. 실버세대를 위한 전용 여행용 클렌저도 있다. ‘시니어 클린’은 중년 이후부터 분비되어 모공 속에 쌓이는 지방산 제거에 효과적인 제품이다. 이제는 해외여행의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도 실버세대용 로밍서비스가 등장했다. SK텔레콤의 ‘T로밍 실버 무한톡’은 만 65세 이상의 실버세대가 대상인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다. 하루 5000원으로 전 세계 134개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 등의 소용량 콘텐츠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유용하다.

김재범 전문기자

허시파피 ‘앵클부츠’에 반하다

심플 디자인·편안한 착용감 장점

‘베이직에 숨겨진 멋스러움.’

허시파피 2014년 FW시즌 앵클부츠가 인기다. 제품의 강점은 의도적으로 화려함과 복잡한 디자인을 배제해 보자마자 ‘베이직 심플’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이는 허시파피의 철학과 맥을 같이한다. 1958년 탄생한 컴포트 캐주얼슈즈 허시파피는 현재까지 ‘편안함’이란 철학을 고수하고 있다. 오래 신어도 질리지 않는 꾸준한 멋이 숨어 있다. 심플함 속에 숨어 있는 멋스러움은 웬만한 코디는 무난히 소화해 낸다.

허시파피 앵클부츠는 에너지 넘치는 여성을 위한 부츠다. 파티 등의 특별한 패션코디만 아니라면, 에너지 가득한 커리어 우먼의 어떤 의상과도 무리 없이 매치된다.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피로감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2014년 FW시즌 부츠는 허시파피의 오리지날 대표 제품. 특히 편안함을 위한 과학의 완성판이다. 부드럽게 발목을 감싸주는 소가죽과 보온성이 탁월한 기모내피, 안정감 있는 높이의 아웃솔 등을 갖췄다. 올겨울 에너지 넘치는 커리어우먼에게 제격이다. 문의 02-6470-7000

김명근 기자

한국 관광수지, 28개월만에 흑자

관광수지가 28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9월 관광 수입은 17억7000만 달러(약 1조8650억원)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나 늘어난 수치로, 월별 관광수입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이 기간 관광 지출은 16억9000만 달러(약 1조7807억원)로 관광수지는 78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관광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12년 6월 이후 28개월만이다.

그동안 계속 적자를 기록하던 관광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건 씀씀이가 커 ‘손 큰 관광객’으로 불리는 중국, 홍콩, 러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온 방한객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덕이다. 9월 들어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가 17%나 증가한 것을 비롯해 홍콩(48%), 러시아(38%), 말레이시아(18%), 싱가포르(8%) 등 대부분 두 자릿수를 넘거나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체류기간 동안 쓰는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648달러. 하지만 이들 국가들의 경우 중국 2272달러, 러시아 2102달러, 싱가포르 1975달러, 말레이시아 1894달러 등으로 평균치보다 월등히 지출액이 높다. 특히 9월에는 20세 이하의 방한객 비중이 줄고, 대신 20대와 61세 이상의 방한객 비율이 늘면서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이 증가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관광수지를 보면 관광수입은 130억7000만 달러이고, 관광지출은 148억5000만 달러다.

김재범 전문기자

게임시장, 모바일 웃고 온라인 울다

지난해 모바일시장 190.6%↑ 온라인시장 19.6%↓

지난해 모바일게임 시장은 크게 성장한 반면 온라인게임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3년 국내외 게임시장 동향을 분석한 ‘2014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9조7198억원으로 2012년과 비교해 0.3% 감소했다. 무엇보다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는 감소하고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 증가한 것이 눈길을 끈다. 온라인게임은 2012년과 비교해 19.6% 감소한 5조4523억원을, 모바일게임은 190.6% 증가한 2조327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게임수출은 27억1540만 달러로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반면 수입은 3.9% 감소하면서 1억7223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백서에 따르면 게임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확실한 동력 요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2016년까지 소폭의 성장과 축소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014 대한민국 게임백서는 11월3일부터 시중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 지역 서점을 통해 게임업체 관계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